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4호 [부제 제25427호] 주체 105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 것이다

전망,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조선의 국력을 세계인간에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71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창건은 자주시대 새혁명의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온 의의깊은 사변이었다.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여년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거대한 전진의 힘이 인민의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하여 온 역사이며 당은 위대하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백전백승을 펼쳐 온 성스러운 력사이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은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10월 10일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올해의 당창건기념일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된 역사적인 해에 맞이하는 것으로 하여 더욱 환희롭고 의의깊은 명절로 되고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 높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밝힌 당 제7차대회는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의 위대성과 인민의 위대함을 다시금 만민에게 과시한 중대한 계기였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빛나는 승리와 영광을 수놓아온 혁명의 년대들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의 한걸음 한걸음 끝까지 나아갈 불타는 길에 나설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계는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우리 인민의 힘과 승기를 총폭발시켜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핵무기대국을 어렵게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혁명하는 당의 높은 존엄과 불패의 위력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명도따라 인민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으로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인민대중과 한데 어리가 되어 투쟁하는 불패의 혁명적당, 참다운 명도정치조직으로 건설하시였다. 우리 당이 자기의 높은 기록에 미치지 못하고 빛나는 승리를 따르며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혁명과 건설을 백승의 한걸음 전진시켜온 수 있는 것은 이인위인의 리념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명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수십년간 투쟁한 혁명의 길에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 인민대중중심의 명도였고 우리 당이 펼쳐온 정치도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였으며 우리 당의 투쟁 방식도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는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명도방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애인의 사상과 명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은 반세간 미네결전에서의 현전현승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킨 인민의 수호자, 후손만대의 영원한 삶의 머진인 자주, 지립, 자위, 자강의 강국을 일떠세운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력사의 불후추에서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역설 기쁨을 마련한 위대한 당으로 존엄명철수 있게 되었다.

우리 당처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전기간 인민의 운명을 간직하고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인민과 함께 위대한 승리와 거창한 번혁의 력사를 수놓아온 혁명적당은 이 세상 없다.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지도자, 강요방편지시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명도따라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영리한 지도사상으로 하고는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최고강령으로 들어가고나아가는 백전백승의 당이다.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진로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오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이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투쟁목표도 인민의 력원, 선화제일강국을 건설하는 데 있다. 수령명령을 가장 숭고한 경지에까지 실현하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수훈찬사를 당사업의 주선으로 이루어고나가는 수령의 당,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대중중심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진정한 어머니당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인민대중중생명을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조선로동당을 운명의 동태, 어머니로 믿고 따르고있으며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반세기동안 기치높이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 주는 혁명적당이다.

인민의 운명이자 당과 조국, 혁명의 운명이며 인민수호, 인민사랑의 길에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전진해온 혁명적원리이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의 혁명적투쟁력을 비상히 강화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끊임없이 저지시키고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끝까지 수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국방병전로선에도 인민의 운명수호를 위한 절절한 반세기투쟁이 새겨져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신 선군정치에도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어려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자주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무적불승의 백두산혁명강국이 자리잡고 강력한 주체적 국방공업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진되게 되었다. 우리 인민이 수십년간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자주적이며 창조적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었던 것은 한평생 백두산총대를 틀어쥐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걸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혁명명도의 빛나는 길이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우리 당은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인민의 운명개척의 앞길에 영원한 승리의 담보를 마련하였다. 당을 따라 일심단결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었던 것은 한평생 백두산총대를 틀어쥐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걸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혁명명도의 빛나는 길이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우리 당은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인민의 운명개척의 앞길에 영원한 승리의 담보를 마련하였다. 당을 따라 일심단결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었던 것은 한평생 백두산총대를 틀어쥐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걸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혁명명도의 빛나는 길이었다.

조선로동당은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인민의 품과 리상을 높여주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영리한 지도사상으로 하고는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최고강령으로 들어가고나아가는 백전백승의 당이다.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진로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오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이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투쟁목표도 인민의 력원, 선화제일강국을 건설하는 데 있다. 수령명령을 가장 숭고한 경지에까지 실현하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수훈찬사를 당사업의 주선으로 이루어고나가는 수령의 당,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대중중심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진정한 어머니당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인민대중중생명을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조선로동당을 운명의 동태, 어머니로 믿고 따르고있으며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반세기동안 기치높이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 주는 혁명적당이다.

인민의 운명이자 당과 조국, 혁명의 운명이며 인민수호, 인민사랑의 길에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전진해온 혁명적원리이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의 혁명적투쟁력을 비상히 강화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끊임없이 저지시키고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끝까지 수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김파랑새를 심장에 보아박고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높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고계신다. 지역자강의 기상으로 북돋아 내뿜는 우리 로동계급을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내세우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온 나라에 전진과 창조적 활력을 불어넣는 영웅청년선화와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창조하도록 하시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그들의 사상정신적봉모를 따라배우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는 우리 인민을 신념의 최강자, 창조적 기진들로 키우는 생명선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위업을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당의 불후에서 마치고, 모든의 위력은 끝없이 강화될 것이며 그 길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인민의 품과 리상을 높여주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영리한 지도사상으로 하고는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최고강령으로 들어가고나아가는 백전백승의 당이다.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진로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오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이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투쟁목표도 인민의 력원, 선화제일강국을 건설하는 데 있다. 수령명령을 가장 숭고한 경지에까지 실현하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수훈찬사를 당사업의 주선으로 이루어고나가는 수령의 당,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대중중심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진정한 어머니당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인민대중중생명을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조선로동당을 운명의 동태, 어머니로 믿고 따르고있으며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반세기동안 기치높이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 주는 혁명적당이다.

인민의 운명이자 당과 조국, 혁명의 운명이며 인민수호, 인민사랑의 길에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전진해온 혁명적원리이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의 혁명적투쟁력을 비상히 강화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끊임없이 저지시키고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끝까지 수호하였다.

## 우리 당의 문명강국건설구상이 응축된 인민의 체육전당

김 일 성 경 기 장 준 공 식 진 행

【평양 10월 9일합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은 높이 받들고 새로운 비약과 번영의 만리마시대를 펼쳐가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떨치며 김일성경기가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게 전변되었다.

총지휘수령인 모반봉기수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융화되도록 개건된 김일성경기장은 당의 체육중시사상과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 숭고한 인민관이 철저히 구현되고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훌륭히 꾸러진 본보기체육시설이다.

4만여석의 관람석과 새로운 인공잔디를 입힌 축구장, 선수입장 등 그리고 국제축구연맹사무실과 심판원실, 감독실, 기자회견실, 악물검사실, 치료실, 과학기술보급실 등 비롯한 현대적인 체육 및 문화부속시설들과 방사망까지 그르니 갖춘 경기장에서는 국가적인 정치문화행사와 국제국내 체육경기를 원만히 할수 있을뿐아니라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다채로운 체육활동 및 문화정서생활도 마음껏 누릴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개신업무를 하시어 유서깊고 대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경기장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의 체육전당으로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함으로써 경기장에 깃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적영을 길이 빛내이고 나라의 체육과 문명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에 따라 훌륭히 개건된 김일성경기장 준공식이 9일에 진행되었다.



위원회의 일군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 경기장개건모수공사에 참가한 군대와 사회의 건설자들과 체육부들과 경기장의 일군, 체육인, 총명원들, 평양시안의 근로자, 청년학생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은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훈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전위적소호를 높이 받들고 북부미제복구건설에서 입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전진위업의 기적적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훌륭히 개건된 김일성경기장 준공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에 따라 개건된 김일성경기장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바기와 정력적인 명도로 의하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선 인민의 체육전당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주체104(2015)년 4월 13일 폭스 경기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경기장은 어머니수령님의 존엄을 모신 경기장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정신이 깃들여있는 단단하고 하시면서 경기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함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자

## 전진하는 사회주의

작사 차호근  
작곡 안정호

금지를 가지고 (J=125)



1. 불길속에서 강철이— 단련되 듯 이



시련속에서 우린더— 강해지 여 라



불패의당 을따— 라 만 난 을—이 겨 온



자랑찬행 로우— 에 신 심 은—백 배 해 우



린 멈춰서지 않 는다— 우 린 두려움 을 모 른다— 우



린 폭풍치며 나 간다— 사 회 주의 승 리의 길 로

2. 한마음 뭉쳐 못 넘는 산악이 없고 한뜻이 되어 못 이긴 풍풍이 없네 언제나 당을 믿고 기적을 펼쳐온 일심사의 대오속에 신념도 백배해 (후렴)

3. 주체의 당기 날리며 나가는 우리 사회주의의 강국을 일떠세우려 향도의 당이 펼쳐 찬란한 미래로 세대를 이어가며 곧바로 가리라 (후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열사부부는 조선로동당의 존재 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 때로부터 한해가 흘렀다. 지금 우리 천만군민은 인민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일련단심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뿐라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 전략을 제일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추진할것이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할것입니다.》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에 혁명적의 생명 있고 힘이 있다. 당에 충실한 인민이 있고 강력한 혁명군대와 청년대군이 있으면 그 어떤 역사의 돌풍속에서도 당과 혁명은 절대로 꺾이지 않으며 승승장구하게 된다. 지난 1년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

지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성이 뚜렷이 파시된 공적들은 한해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놓으며 인민의 리상과 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여왔으며 군력강화에 커다란 힘을 넣어 우리 조국을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진시켰다. 특히 청년들을 시대정신의 창조자로 내세워주고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역세게 키워준 당의 믿음과 사랑속에 우리 청년들은 북부피해복구전선을 비롯한 200일전투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부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혁명적의 용이다.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

람하여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우리 당의 혁명적용모가 있다. 당을 믿고 만민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을 하루빨리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부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당사정연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키며 인민의 리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봉쇄속에서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공장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사회주의문화의 제모에 맞는 기념비적장소들이 수많은 일떠서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 과일향기가 차넘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영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오를 우리 당은 200일전투의 주체적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전환시키고 여기에 모든 힘을 총동원, 총집중하고있다. 억만금을 쏟아 붓고 나라의 재부를 총체로 기울여 세라도 피하지인민들의 마음에 차그마한 그늘도 지지 않게 하려는 우리 당의 열사부부정신은 전위위부의 거적장조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인

민의 다량한 군사적력수단들과 주체관철을 더 많이 개량생산하도록 한 우리 당의 선군영도에 의하여 불패의 군사강국의 위력이 더 높이 펼쳐지게 되였다.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면에 당면히 들어선 선군조선의 궁지없는 모습에서 우리 인민은 민족만대의 운명을 담보해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절감하고있다. 지금 미세하고 추운세력들은 전략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핵전력의 불구름을 끌어올리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침략사찰에게 핵공격을 가할수 있는 강력한 타격수단들과 원수원에 대한 중요성을 만장악한 사상의 강자들의 대우대가 있는 선군조선의 하늘은 영원히 맑고 푸를것이며 우리 인민은 강력한 국방력, 정적력, 세력력, 모용을 앞세워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것이다. 우리 당은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선 임무수행의 명장들로 역세게 키워나가고있다. 당의 영도는 청년들이 백두의 혈통, 주체혁명위업을 굳건히 이어나갈 계승자로 역세게 자리나도록 하는 생

명선이다. 청년교양에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이고있는 우리 당의 사랑은 청년들을 영웅청년정신과 영웅청년문화의 창조자로 키운 자랑분이고 자기의 힘을 믿고 만년을 품고 나가도록 이끌어준 우리 당의 영도는 청년들이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자라나게 한 근본원천이다. 당의 믿음은 지극도 든다는 신념과 배짱을 지니고 엄중한 자연과의 작전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돌보며 일떠세운 영웅청년문화와 총정의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에서 청년들이 창조하고있는 영웅적위훈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영도도 얼마나 위대한가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에서 수평으로 되었다. 우리 청년들은 김일성, 김정일청년동맹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만리마우도장조의 기수가 되고있으며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역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방성과 사회주의제도를 금성성벽으로 지키는 선군혁명의 최후대, 조국보위전의 주체부대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고있다. 자력자강일주의의 가치를 높이 추켜올리고자 함의 공적정신과 청춘의 기백으로 새로운 기적과 현실을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청년들이며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위한 청년들과의 일장에서 청년시절의 하루하루를 흘리는 창조와 위훈으로 빛나고있는것이 우리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앞서 일하는 모든 곳에 사회주의문화가 활짝 꽃피우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 퍼지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당의 두리에 철결단적의 성세를 이루고 당의 영도를 앞장서 반들어나가는 전위위부의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크나큰 공적이고 힘이다.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제일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당 제7차대회 결정원칙을 위한 충진공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결의가 있는 순간순간을 불라는 총정과 깊은 위훈으로 수놓아가야 할것이다. **윤 철 희**

##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천만의 심장속에

### 각 지 당 조직 들 에 서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일흔한해의 년월이 새겨지고있다.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계기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시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혁명을 위해 투쟁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시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회화시, 연사문, 무산문을 비롯한 북부의 해지역의 당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피해복구전투로 불붙은 현지에 나간 당원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부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위위부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한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조서로써 당원들에게 이 사건의 당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피해복구전투로 불붙은 현지에 나간 당원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부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위위부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한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조서로써 당원들에게 이 사건의 당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피해복구전투로 불붙은 현지에 나간 당원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부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위위부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한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조서로써 당원들에게 이 사건의 당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 혼연일체의 당, 어머니당으로

이 보고 귀한 약재까지도 놓고갔다 는 당원군... 순간 경회동무는 자리를 딱차고 일어났다.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대표로 참가하였던 그의 손을 꼭 잡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미치지 않고 우리 어머니 당을 따라 곧바로 달려나가고 있던 당원군의 절절한 호소가 그의 귀를 울렸다. 그날 평양중구의 청년들은 농장적인 가을절이전후에서 기발을 들고 달려나갔으며 총정의 200일전투의 또 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었다.

이것이 어찌 그의 집에서만 펼쳐진 화풍이라고 하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물을 총체로 기울여세우려고 이겨 당원들이던달 한강우위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고 함께 함께 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어머니당의 뜨거운 호소를 안고 회화시와 무산문, 연사문을 비롯하여 총정의 혁명의 전진리듬을 이어나가던 당원들이 이렇게 낯과 남아 따로 없이 인민을 위한 길을 걸었어지고있다. 이런 당원들이기에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우리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그토록 따르는것이다. **본사기자 손 영 희**

##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는 우리 당의 일관한 정도원칙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영도따라 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 내 조국은 끝없이 불성변명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광 희

# 우리 당의 문명강국건설구상이 응축된 인민의 체육전당

## 김 일 성 경 기 장 준 공 식 진 행

### 1 면 에서 계속

그리고 여러차례 걸쳐 김일성경기장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개천일임을 하신 유시기를 경기장전에 무개있으면서도 현대적미감이 나게 시공하도록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완공할수 있도록 힘있는 건설력향도 편성해주셨다.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수많은 형성안과 설계도면들을 지도해주시면서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명도에 의하여 김일성경기장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게 되었다.

김일성경기장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하고야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투쟁의 정신과 군인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일떠선 위대한 창조물이다.

12월 건투에 진입한 첫날부터 공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대중의 정성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최선적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군인협동작전으로 공사를 실현된, 렬적전의 방법으로 비롯하였다.

《사회의주의문명강국의 체도에 맞는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이러 김일성경기장에서는 4.25령과 최불림사이의 축구경기가 진행되었다. 최불림의 먼저자기로 시작된 경기에서 관림은 경에서 편만한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시적부터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였다.



김일성경기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태양의 온함을 모신 영광의 혁명사적단위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판공업사업을 더욱 꾀고붙여 당의 사랑이 계속인들과 근로자들에게 더 잘 전달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체육부문의 일군들과 선수, 감독들이 체육강국건설의 직할적담당자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지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금에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당중앙을 경사유위함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관림자들은 높은 축구기술과 정성력,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보여준 두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고조시키며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어나가자 함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당 제7차대회가 펼친 위대한 진로마라 만리마속도상조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이 땅에서 사

세계에 빛내어나갈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통상에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과 스위스조선 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안동수유가족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에 조선로동당장기 71쪽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 가족인 정일성동지와 스위스조선 선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에 9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 창립 70돐 기념 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분 전달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 창립 70돐 기념 보고회가 9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 오수용동지와 연합기업소 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을 오수용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해당부 나라의 전력문제해결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5(1946)년 10월 10일 우리 나라의 첫 수력건설기업소를 창립해주시고 18차례나 발전소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를 수력발전소건설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는 위대한 건설부대로 키워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일찌기 정치강

발전소건설장에 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기업소로동자들이 일하는 발전소건설장들을 15차례 찾으신어 새로운 위훈장조개로 고무해주시고 수력건설자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고 지적하였다.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는 창립후 70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에 그 어떤 수력건설과도 비교할수 없는 강력한 건설집단으로 성장강화되어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연합기업소의 로동자들이 나라의 전기화실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을 훌륭히 일떠세워 나

라의 전력공업을 발전시키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의 애국충정과 모범적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지대인 리명환의 보고에 이어 부지대인 안성진, 조금당위원장 김명하, 직장장 리기현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자강적제일주의의지를 높이 들고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용대한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용진간의 앞장서서 만리마속도로 정철강이 내달릴것을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전력생산기지를 대대적으로 일떠세울데 대한 당 제7차대회 결정판에 총력을 집중하여 현재 건설하고있는 발전소들의 프로젝트를 최대한으로 앞당기며 모든 건설대상들을 천년백년, 만년백년의 창조물로 일떠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200일전투의 최전방, 주적비방항인 함북도 북부퍼해북구건설을 중심방면으로 지원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과학기술의 힘,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중산류형, 상류류형, 연속공격전을 맹렬히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감으로써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급수산래 양궁전을 찾아 우간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급수산래 양궁전을 찾아 9일 오후 파울 마이클 우간다대통령 부 선전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간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주제의 광휘로운 빛으로 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

시고 인류사주위일선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의 정을 안고 질세위원들의 협상을 우리 리 승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용복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

렸다.

대표단성원들은 흥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 용하신 승승차와 전통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다

다.

당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

###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 2016년 국제 축구련맹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 준준결승경기에 진출

2016년 국제축구련맹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 조별리그가 8일에 끝났다.

지난 8월 30일 요르단의 암만에서 시작된 경기대회에서는 우리 나라의 도이힐랜드,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16개 나라의 팀들이 참가한 가운데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경기가 벌어졌다.

3조에 속한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은 나이지리아, 브라질, 잉글랜드와 경기를 하였다.

우리의 나이러 선수들은 재능의 깃을 귀중히 여기고 끝까지 뛰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믿음과 기대에 훌륭한 경기성공과 보답할 일념으로 경기들을 열심히 운영해나갔다.

잉글랜드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3:0으로 비긴 우리 팀은 두번째 경기에서 브라질을 1:0으로 이겼다.

조별리그 마지막경기에서 나이지리아와 대진한 우리 선수들은 시종 공격약수를 높이고 기술준비적우세를 보이면서 경기시간 30분, 45분, 83분경에 득점을 성공시켰다.

결국 조에서 1위를 한 우리 팀은 다음단계 경기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13일 가나와 준준결승경기를 하게 된다.

조별리그를 마친 단위의 총평

원들은 배구대, 정구대들도 자력으로 만들어 설치하였으며 나무와 전리시 등 목조건축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국제육지도위원회에서는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체육열풍을 일으키는데 적극 리용될 체육시설을 만들어놓았으며 은덕현에서도 계절에 관계없이 청소년학생들이 수업을 할수 있는 놀이장을 면목하게 꾸려놓았다.

새로 건설된 체육시설들은 군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현인 통성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남아프리카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김정일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4일 자코브 게블레이론데 키사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선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코브 게블레이론데 키사 주마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총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림것을 대사에게 부하하였다.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남아프리카 정부와 인민의 위업에 언제나 지지와 협력을 보내주고있는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회고명도자이신 김정은각하의 명도림에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